

세계 유일 불교 일간지... '人間福報'

대만, 본지 20만부·자매지 미주판 Merit Times도 1만부

세계 유일의 불교 일간지를 아시나요. 불자들은 국내외에서 많은 불교 주간지와 월간 및 계간지가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불교 일간지가 발간되고 있다는 것은 잘 모를 것이다. 주 3회 발행되는 일본의 <중외일보(中外日報)>가 있지만, 실질적인 세계 유일의 불교 일간지는 대만의 <인간복보(人間福報)>다.

불광산사의 성운(星雲)대사가 2000년 4월 1일 창간한 <인간복보>(발행인 의공(依空)스님)는 대만, 12면으로 발간되는 불교 일간지다. 대만내에서 20만부나 발행되는 <인간복보>는 미주지역에서도 영문판 <Merit Times>를 1만부 발행할 정도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인간복보를 추구하는 불교 종합일간지인 <인간복보>의 1면.

할 불교내외의 덕있는 인사들을 모아 법열을 느끼도록 하며 아프고 고독한 사람에게는 위안을, 괴로운 이들에게는 광명과 희망을 주고 있다.

발행인 의공스님은 "우리는 새롭고 균형있는 보도로 자비니법을 확산시키고 사회의 온정과 광명을 반영하며, 세상을 맑게 하고 인심을 교화함으로써 부처님의 본뜻인 인간불교(人間佛敎)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발행목적에 명쾌히 정리한다.

한편 미주지역에서 발행되는 <Merit Times>는 2000년 7월 16일 창간되었으며, 역시 12면 발행에 1만부의 부수를 자랑하고 있다. 주로 LA를 중심으로 한 국제불광회 회원들의 예약구독으로 운영되는 <Merit Times>는 지역에서 유력 매체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Chinese Daily News>와 제휴해 발행 및 배포하면서 보급망을 넓히고 있으며 캐나다, 중앙 및 남아프리카까지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인간복보>는 100만여 가구를 자랑하는 두터운 불광산사의 신도층과 국제불광회의 조직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크지만, 5개가 넘는 국내외 불교 주간지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포교매체임이 분명하다.

대만=김재경 기자 jkim@buddhapa.com

정토구현에 적합한 미담 위주 보도 발행인 의공 스님 인간불교 구현 목적

광고면을 최소화(1면 정도)하고 국제불광회의 포교기금과 구독료(약400원)로 운영되는 <인간복보>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사회와 국가를 정화해 인간정토(人間淨土)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교리(佛敎)는 물론 시사, 종교문화, 경제, 교육, 사회, 문예 및 향토, 가정 및 복지, 독자논단 등으로 지면을 채워 기존의 언론관행과는 다른 지면을 구성하다보니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오염된 언론매체 가운데에서 진선미를 추구 하고 '제악막작 선선봉행(諸惡莫作 衆善奉

행)'을 보도이념으로 하는 <인간복보>, 사회의 미화 및 정화, 지인유(智仁勇)의 인생교육, 자비심의 확산, 인연과보(因緣果報)의 강조 등을 4대 지표로 삼고 불자들에게 지혜를 전승



△3월 29일 중국 법문사 스님과 경찰의 호위속에 까오승 불광산사 대웅전에 모셔진 불지사리(가운데).

佛指사리, 다시 중국 법문사로

대만전역 전시중 4백여만 명 참배

37일간 대만에 모셔졌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손가락 사리(佛指舍利)가 3월 31일 불자들의 환송속에 중국 본토로 돌아갔다.

불지사리는 이날 오전 대만 까오승(高雄) 시립경기장에서 10만여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환송법회를 마치고, 까오승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전세기를 통해 이 운됐다. 이 불지사리는 대만 불광산사 성운대사와 중국 백법선사 정해선사를 단장으로 한 대만 및 중국불교계 대표단의 호송을 받으며 홍콩을 거쳐 중국 섬서성 법문사에 안치됐다.

불지사리는 그간 대만 전역의 여러 곳에서 전시돼, 약 400만명의 참배를 받았다. 이날 환송법회에도 10만여 불자들이 하루전부터 철야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부처님의 공덕을 기렸다.



△중국에서 최근 태어났고 있는 판첸라마(좌)와 겐덴 최끼 니마.

중국, 새 '판첸라마' 옹립

티베트 인정 소년 거부, 신문·TV 홍보 개시

중국에서는 티베트 망명정부에 의해 1995년 5월 11대 판첸라마로 승인되었던 소년(겐덴 최끼 니마)을 거부하고, 그 해 12월 중국이 선택한 새로운 소년(겐덴 노르부)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에

나섰다고 티베트 인권단체들이 잇달아 폭로했다. 최근 판첸라마의 베이징의 옹호 사원에서 치뤄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새로운 판첸라마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법회 후에는 11대 판첸라마의 대형 사진과 기사들이 신문을 뒤덮었으며, TV를 통해 장시간 보도됐다. 신화 통신사는 겐첸 노르부가 150여 명의 불자들과 중국의 티베트 지역에서 온 환생자들에게 축복을 주었다고 보도했다.

10대 판첸라마가 89년 1월에 서거한 후 같은해 4월 25일 출생한 겐덴 최끼 니마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어린 정치적 유배자이다. 중국 당국은 겐덴 최끼 니마는 현재 안전한 지역에서 조용히 그의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소년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있다.

판첸라마는 티베트에서 달라이 라마 다음의 지위로 죽은 후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 존재다.

미주 禪대학원 원불교, 9월 개교

총장에 고윤석 씨

미국내에서 선과 명상, 그리고 불교응용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최초의 불교대학원이 문을 연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미주 선대학원 (Won Institute of Graduate Studies, 총장 고윤석·사



진)은 오는 9월 정식 개교에 앞서 선용 옹화과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선과 명상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과 불교의 건강, 의료, 상담 등의 응용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원불교는 최근 미국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펜실베이니아주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대학원 인가를 받음으로써 한

국불교의 세계화의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미국인과 함께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선학대학원 (www.woninstitute.org)은 2년 석사과정으로서, 졸업후 선과 명상을 지도할 수 있는 석사학위가 주어진다.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TOEFL 성적이 550점 이상인 자며, 6월15일까지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0011-215-884-8942, info@woninstitute.org

새 계간 불교잡지 '붓다 다르마' 삼발라센터, 8월 15일 창간



△'붓다 다르마'의 표지.

캐나다 노바스코티아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불교 신행단체인 삼발라(Shambhala)센터 국제본부는 기존에 발행해오던 격월간 <삼발라 선(Shambala Sun)>에 이어 새로운 계간 불교잡지 <Buddhadharma(佛法)>를 오는 8월 15일 창간한다.

<삼발라 선>이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신행단체인 삼발라와 티베

트 불교 위주로 보도해 온데 반해 이 잡지는 티베트 불교 이외에도 한국, 중국, 스리랑카를 비롯한 전세계의 불교를 골고루 다룰 예정이다.

지난 2월 20일 뉴욕 맨하탄에서 리셉션을 갖고 설명회를 가진 <붓다 다르마> 편집진들은 서구 불교사회가 성숙해 가는 만큼 불교에 완전한 귀의 한 독자층이 불교를 더욱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면을 꾸밀 예정이다.

<붓다 다르마> 매거진 편집진은 "각각 고승들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여러나라 불교 전통과 활동에 대한 소식을 실어, 다른 전통의 수행자들간의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편집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창간취지를 밝혔다.

한편 30여년 전통의 <삼발라 선>은 미국 뉴욕에서 발행되는 계간 <Tricycle>과 함께 미국불교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왔다.

• 도시로부터의 질문, 숲속에서의 답변 (Questions from the city, answers from the forest): '서구의 스님으로 배우는 단순한 가르침'이라는 부제를 달고 이 책은 시카고에서 태어나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다, 태국 승단으로 출가한 아잔 수마노 (Ajahn Sumano) 스님의 법문을 기록한 책. 특히 1994년부터 이듬해까지 태국의 코야이 국립공원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스님을 친견하고 싶어하는 영어권 여행객들과의 문답을 엮었다.

금속생활, 성욕, 자아, 기억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로 수년간 펼쳐진 대화들은 서구인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그들에게 강한 영감을 주고 있다. 미국 신지학(神智學)출판사 펴냄.

• 최후의 여행 (Ultimate Journey): 저자 리처드 빈스타인이 깨달음을 찾아 아시안을 횡단한 당나라 현장스님의 흔적을 추적한 책. 629년 인도로 구법여행을 떠난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정신적, 육체적인 도전을 극복해가는 저자의 현대적인 여행은 현장법사가 추구한 고대의 탐구와 우아하게 접합되며 독자적인 이야기를 엮어내고 있다. 이 책의 첫부분에 보이는 지도는 저자가 가르치던 중국에서부터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의 기나긴 여정을 암시해 준다. 저자는 그 길에서 만난 실크로드와 성스러운 사리탑과 사원들을 산과 강,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미국 Knopf Alfred A 펴냄.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견전지용 조 • 정사조름 및 손잡이대



등 간 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 ▶ 불제대원 고주전구, 인제전구(정종)
- ▶ 종류 :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밀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가베) 월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견전지용 조

- ▶ 정사조름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 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 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들에 꼭 필요합니다. (견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031) 986-0277-8
http://www.bulje.co.kr

구입문의 (02)2266-2634
구입문의 (02)2263-2638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길포동 389-43

꺼지지않는 초